

세계경제 94-03

円高에 따른 日本의 産業構造調整과 韓國經濟의 對應

李 鐘 允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머 리 말

2차대전 이후 승승장구를 달리던 일본경제가 최근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하다.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래 3年餘가 경과되고 있지만 두드러진 경기회복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日本經濟는 이러한 不況 속에서도 여전히 거대한 經常收支黑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円高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円高로 인해 초래된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종래까지는 生産施設의 能率化와 勞動集約的 部品類의 海外生産・輸入方式으로 대처해 왔으나 거둬들인 円高에 따른 内外價格差의 확대로 인해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근본적인 대처방식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각 생산부문의 競爭力構造에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나 새로운 對應方式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部品 및 資材類의 海外生産이나 輸入比率이 종래에 비하여 월등하게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종래에는 없던 研究開發活動분야에서의 해외기업과의 제휴, 流通經路의 대폭적인 短縮 및 競爭入札制度의 導入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대처방식은 말하자면 海外企業과의 수직적 생산방식에서 수평적 생산방식으로의 轉換을 뜻하게 될 뿐만 아니라 開放幅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 이와같은 變化는 우리 기업의 對日接近을 훨씬 용이하게 하는 環境의 出現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深度있는 대응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원은 日本經濟의 이러한 變化를 정확히 포착하여 韓日間 水平的 分業의 확대 및 이를 통한 대일역조의 축소를 실현할 수 있는 政策提案을 제시해 보기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연구해 온 본 연구원의 초청연구위원인 韓國外國語大學校 李鐘允 教授에게 정리를 부탁하였다.

우리나라 經濟가 輸出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經常收支赤字는 당초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要因

이 對日赤字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가 우리의 대일적자를 줄이고 이를 통해 經常收支를 構造的赤字狀態에서 黑字狀態로 전환시킬 수 있는 方向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研究에 담겨진 모든 내용은 著者の 의견이며 本院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년 11월

세 계 경 제 연 구 원

이사장 사 공 일

목 차

요약	7
I. 序	11
II. 日本의 經濟發展構造와 円高에의 對應方式	12
1. 日本의 經濟發展構造	12
2. 円高에의 對應方式의 展開	15
III. 최근의 円高에 따른 日本의 産業構造調整	22
1. 円高가 日本經濟에 미치는 영향	24
2. 円高에 대한 日本經濟의 對應	26
IV. 韓國의 經濟發展構造와 對日關係	36
1. 韓國의 經濟發展構造	36
2. 韓國의 對日關係	39
V. 円高活用을 위한 韓國經濟의 새로운 接近方式	42
1. 日本生産技術의 導入을 통한 韓國企業의 리엔지니어링	44
2. R&D 活動에서 日本企業과의 戰略的 提携 擴大	46
3. 日本市場에 대한 流通經路의 재구축	48
4. 國別 通商戰略의 재구축	49
VI. 結言	52
參考文獻	54

표 목 차

〈表 1〉 円貨價値의 變化에 따른 賣出額 및 利益의 變化	24
〈表 2〉 日本素材部門의 円高에의 對應패턴	32

요 약

문제의 제기

- 日本의 한층 확대된 國際收支黑字과 일본에 대해 攻撃的인 미국 클린턴 政權의 등장으로 인해 최근 다시 円高가 진행되어 왔으며 1달러당 100엔선이 무너지는 것을 분수령으로 하여 일본의 국내외가격간의 격차가 일층 확대되는 등 모순이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矛盾의 擴大와 더불어 부분적인 현상이긴 하나 價格革命, 下請制度에 대신한 競爭入札制度의 등장 등 円高에의 새로운 대응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경제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기업의 대일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의 조성이라 생각되는 바, 이러한 환경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對日戰略의 수립이 요망되고 있음.

日本의 經濟發展構造와 円高에의 傳統的 對應方式

- 일본의 특징적인 經濟發展構造를 보면 全加工段階를 망라하는 원 셋트형 産業組織 및 그 下部構造에 존립하는 무수한 中小企業들과의 長期的, 繼續的, 重層的 下請去來와 같은 강력한 산업조직의 존재로 인해 製造業에 관한 한 比較優位産業들의 수출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比較劣位部門의 수입활동은 극히 부진한 편임.
- 日本의 資源配分方式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消費財産業보다 勞動生産性이 높고 기술진보율이 빠른 분야인 중화학공업, 더 나아가서는 尖端技術을 위시한 技術開發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성능 시설개체를 용이하게 하는 반면, 1인당 GNP수준에 비해 열악한 주택사정 및 사회보장제도를 방치하는 식의 정책운영이었다고 할 수 있

음.

- 이러한 정책운영은 결과적으로 高物價, 高貯蓄, 高黒字 그리고 엔고의 진행을 구조화시켜 왔음.
- 1970년대까지의 흑자축소 및 円高에의 대응을 위한 對外戰略은 값싼 勞動力과 低級技術을 결합할 수 있는 東南亞地域에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를 移轉하여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것이었음. 즉, 노동집약적 산업을 海外로 移轉하고 이 海外進出企業을 통해 資本財를 수출하는 것으로서 東南亞를 日本의 間接輸出基地로 활용하였음.
- 1980년대 円高克服을 위한 일본의 대외전략은 低級完製品 및 中級部品類를 생산하는 企業들의 生産基地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중진국들로, 그리고 低級部品類 생산 및 組立을 담당하는 企業들은 동남아로 移轉한 후 再輸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완제품의 원가를 절감하는 것임.

최근의 円高에 따른 日本의 産業構造調整

- 1달러당 95엔~100엔이라고 하는 최근의 超円高下에서 일본경제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기업의 채산성이 극히 악화되고, 設備投資가 부진하며 엔고에 따른 日本國內外 가격차의 확대로 在庫品을 중심으로 가격의 暴落現象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일본기업의 대응을 보면,
 - i)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서 生産基地의 海外移轉과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部品類 중 해외수입의 비율을 종래에 비해 월등히 높임으로써 原價節減을 꾀하고 있으며,
 - ii) 外部資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코스트를 引下시킴은 물론 새

로운 成長도 아울러서 모색하는, 이른바 국내외 외부기업과의 戰略的 提携를 적극 추진하고,

- iii) 해외이전에서 오는 産業空洞化를 막기 위해 高度化되면서도 보다 소프트한 商品製造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 iv) 素材産業分野에서는 관련기업과의 合併을 통한 コスト削減이나 수입품과 競合하지 않는 분야로의 轉換을 적극 모색하고,
- v) 가격의 破格的 引下를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것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나친 多品目小量生産體制를 지양함으로써 단일품목당 規模의 經濟效果를 제고시키는 물론 감가상각비부담을 축소시키고,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流通經路의 단축 및 부분적인 현상이긴 하나 下請方式 대신 競爭入札方式의 導入 등을 꾀하고 있음.

－ 政策的 次元의 대응을 보면,

- i) 空洞化를 막기 위해 新法의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 ii) 円資金을 短期 運營하는 市場을 육성하여 일본경제를 轉換變動에 강한 체질로 전환시키며,
- iii)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円高의 극대활용을 위한 韓國經濟의 접근방식

－ 円高에 대한 일본기업의 새로운 움직임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대일수출 증대 및 대일역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요구됨.

－ 일본기업의 기술·품질·가격에 대한 요구를 우리 기업들이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要件임. 이를 위해서는 일본기업에 축적된 자원의 낭비 및 비능률을 극소화시키는 改良 生産技術을 우리 기업에 導入·體化시키는 것이 시급히 요구됨. 이런 類의

日本型 技術의 도입 · 체화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기술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工團建設 등 社會間接資本의 조성, 조세상 우대조치 등 획기적인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연구개발활동 분야에서 일본기업이 해외기업과의 戰略的 提携를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부응하면 기술개발효과의 제고는 물론 原價節減도 실현할 수 있음. 이 때 우리 기업이 일본 一流企業과의 제휴에만 급급하면 우리 측이 제공할 것이 적어 외면당하기 쉬우므로 실질적으로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입각하여 제휴선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이 제휴가 활발하고 실리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자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 · 수집, 유통시키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 일본의 價格革命, 流通經路의 단축, 그리고 下請制度에 대신하는 競爭入札制度의 출현 등은 한국기업의 對日接近을 용이하게 하는 環境의 조성이라고 생각됨. 일본의 이러한 환경변화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對日輸出品 중 우리의 工場渡價格과 일본내 最終 需要者價格間에 특히 마진폭이 큰 품목을 파악한 후 이들 품목의 유통마진이 왜 높아졌는가에 대한 원인 내지는 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유통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結言

- 円高에 대처하는 일본경제의 다양한 對應方式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가 각각의 대응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방식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보다 치밀한 전략의 수립이 요망됨.

I. 序

1985年 9月の 플라자合意에 따른 큰 幅의 円高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속한 증가를 시현하였던 사실에서 명백히 경험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움직임은 한국경제의 活動過程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당시의 円高라는 好機가 한국경제의 발전에 輸出增大, 國際收支의 改善 및 供給力の 擴充 등 諸側面에 걸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日本經濟의 조정속도에 대하여 정확한 評價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效果를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一時的인 것으로 그쳐버리게 했다. 이러한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의 展開에서 알 수 있듯이 一時的으로 축소되는 듯 하던 對日逆調가 오히려 다시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日本の 한층 확대된 국제수지의 흑자와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미국 클린턴政權의 등장으로 인해 최근 다시 円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日本經濟는 새로운 對應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경제로서는 이 円高現象을 어떻게 活用하면 輸出增大 및 누년의 과제인 對日逆調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體系的인 對應策의 수립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최근의 円高로 인해 日本의 산업이 어떠한 構造調整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경제로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內實있는 接近方法일 것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II. 日本의 經濟發展構造와 円高에의 對應方式

도대체 日本經濟는 어떠한 發展構造로 되어 있기에 국제수지의 흑자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대되기만 하며, 나아가서 그들의 貨幣인 円貨의 價値가 平價切上을 거듭하고 있는가?

1. 日本의 經濟發展構造

그러한 發展構造의 形成과 무엇보다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要因은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展開方式이 雁行形態論的으로 발전되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듯 하다.¹⁾ 雁行形態論이란 특정산업을 발전시켜 감에 있어서 먼저 輸入을 통해 당해제품의 內需市場을 形成하고, 國內代替化가 가능할 정도의 최소한의 內需市場이 形成되면 國內代替化를 단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國內代替化過程에서 國內企業들간의 경쟁을 통해 충분한 對外競爭力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이번에는 해외시장으로 輸出活動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産業化 方式을 통해 기술흡수가 용이한 경공업제품으로부터 시작하여 경공업제품의 內需化 및 輸出活動에 의해서 유발된 당해 제품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機資材 즉, 重化學工業製品의 國內代替化 및 輸出化를 추진하여 왔다.

그 다음 단계는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前段階의 內需·輸入活動에 의해서 유발된 보다 高附加價値이고, 技術集約的 제품을 육성시켜 간 것이다. 이런 식의 産業化方式은 國際相對價格差異에 입각한 比較優位商品을 수출하고 比較劣位商品을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활동이 아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만 수입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수입은 극력 억

1) 雁行形態論은 日本의 産業 및 貿易發展過程에서 나타난 經驗法則을 토대로 導出한 理論으로서 日本 一橋大學의 赤松 教授에 의해서 정리·체계화되었음.

제하게 된다.

이때 輸入이 抑制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국내대체에서 수출화로 가는 과정에서 국내기업들간에 철저한 국내시장 확보경쟁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當該製品의 국내시장은 대체로 큰 폭의 초과공급을 보이게 됨으로써 過當競爭狀態가 조성된다. 이러한 과당경쟁상태로 될 때에는 當該製品의 가격도 상당히 引下되어 있을 뿐 아니라, 各業體들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립하여 국내시장을 철저히 包圍하게 됨으로써 이들 품목의 해외로부터의 침투는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經濟發展構造에서 수입을 억제하게 하는 또 하나의 側面은 소위 '원 세트(one-set)型 産業組織'이다. 원 세트型 産業組織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1차 원자재만을 수입한 후, 그 集團內에서 모든 生産段階를 자체 생산할 뿐만 아니라 投入되는 原資材類도 내부에서 조달하고 있어 각 단계별 기업들의 수출활동은 있지만 외부조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성격의 산업조직을 가리킨다. 더구나 그것의 연장으로서 企業集團內 각 개별기업을 정점으로 하여 그 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부품류도 1차, 2차로 이어지는 重層的 下請組織에 의해서 조달되도록 하고 있어 그러한 部品類조차도 좀처럼 외부로부터의 침투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企業集團內 내지는 母企業과 子企業間의 内部去來를 주도하는 존재로서 同一資本系列의 綜合商社가 있는데, 종합상사와 종합상사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內 메이커간에는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진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이커의 對外去來는 적지않은 部分을 종합상사에 맡기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는데²⁾ 이 점도 日本의 輸入抑制의 한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母企業과 系列下請企業間에는 資本系列關係로 맺어진 경우가 많다. 그 뿐 아니라 兩者의 協力에 의해 그 工程에는 그 部品類가 아니면 안되도록 技術을 開發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외부의 침투를 어렵게 하고 있

2) 메이커들의 對外去來중 輸出活動을 綜合商社들에 代行시키는 比率이 크게 축소되어 왔다.

는 것이다.

일본의 資源配分政策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른바 傾斜生産方式이라 하여 소비재산업보다 勞動生産性이 크고 技術進歩率이 빠른 重化學工業分野에 압도적으로 많은 資源이 배분되도록 유도해 왔으며, 더 나아가서 尖端技術을 위시한 高度技術의 開發 및 企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의 高性能施設로의 改替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내용들을 政策體系속에 體化시켜 왔다. 또한 企業活動코스트의 일부를 占하는 物流費를 낮춤으로써 일본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게 함은 물론, 전반적으로 일본경제의 가동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특히 생산관련 社會間接資本의 축적을 중앙정부의 경우는 물론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운영 구조속에 체화시켜 왔다.

그 반면에 농업을 위시한 소비재산업부분은 非能率性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유통구조, 관세 및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 여러가지 형태의 非關稅障壁을 통해 이들 산업의 溫存이 가능하도록 해 왔다.³⁾

이런 式의 經濟運營方式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可用 經營資源을 직접적인 소비재의 공급 보다는 공급능력의 확충·강화에 최우선적으로 할당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로서는 그것이 수입가능재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지만 국내재까지를 포함하여 그들의 1인당 GNP수준에 비해 극히 절약적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 걸친 일본의 경제발전구조를 요약해 보면 일본의 經濟組織이 해외로부터의 침투를 극히 어렵게 하는 폐쇄조직으로 되어 있고, 수입억제적 산업구조를 가지며⁴⁾ 자국의 동원가능한 생산요소를 供給體系의 擴充과 能率化에 압도적으로 집중시키도록 하고 있는 反面, 소비생활은 그들의 經濟力에 비해 극히 절약할 수 밖에 없는 制度的 장치로 가짐으로써 高貯蓄率, 나아가서 국제수지의 흑자화를 누적적으로 증대시켜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諸 形態의 規制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4) 이러한 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증거로서 적지않은 동일용도 상품 의 국내재와 해외재간의 현격한 價格差異를 지적할 수 있다.

2. 円高에의 對應方式의 展開

이러한 日本經濟의 發展構造는 필연적으로 국제수지흑자를 누적적으로 증대시켜 가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흑자의 누적적 增大는 자국 통화의 平價切上, 곧 円貨의 平價切上을 불가피하게 하였던 것이다.

円貨價値의 切上은 輸出産業全般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對應策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日本經濟에서 큰 폭의 円高를 최초로 경험했던 것은 1971년의 스미소니언(Smithsonian)協定에 의해서이다. 즉, 스미소니언協定에 의해서 円貨는 일거에 달러對比 16.88% 切上됨으로써 그 때까지 固定換率制度로서 1달러당 360円이던 것이 308円으로 切上된 것이다.

1달러당 308円으로의 切上은 日本經濟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日本人들은 대외거래에서의 대규모 흑자가 자국산업의 競爭力強化에 의한 結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단지 歐美에 비해 월등한 低賃金狀態, 円貨의 低平價 및 輸入抑制政策의 産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거에 큰 폭의 円高, 그에 따른 달러表示 賃金의 上昇은 日本經濟에 상당한 충격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對應策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되었다.

그 對應方式은 円高를 발생시킨 要因提供者로서의 黒字를 축소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經濟協力 擴大 및 當該地域에 대한 직접투자의 확대였다. 이 경우 그 대부분은 그것이 경제협력의 形態이거나, 直接投資이거나 日本의 物資, 그 중에서도 資本財가 압도적인 比重을 차지했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日本資本財의 安定된 輸出채널의 하나로 되어간 것이다.

가령 直接投資의 경우 그 進出業種이 円高 내지는 賃金上昇으로 급속히 競爭力을 상실하여 比較劣位化되어 가는 纖維, 雜貨 등 勞動集約的 消費財産業類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業種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는 比較優位化하는 業種이었기 때문에 進出企業들은 現地에서 輸出産業으로 發展해 나감으로써 生産活動에 投入되는 資本財의 對日輸入을 계속적으로 擴大되게 한 것이다. 결국 이런 類의 직접투자의 增大는 그

에 比例하여 生産活動에 投入되는 機資材 및 原資材의 對日輸入을 확대시키는 하나의 構造로 된 것이다.

이런 類의 円高對應策와 더불어 円高로 인해 價格競爭力이 弱化되어 가는 組立·加工産業에 대해서는 그 生産工程中 특히 코스트에 壓迫을 크게 주는 勞動集約의 部品類 및 組立部門生産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低賃金地域인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韓國, 臺灣 및 동남아 등으로 生産立地를 이전시켜 生産하여 再輸入함으로써 當該 組立·加工製品의 原價를 低下시켜 價格競爭力을 크게 회복하게 한 것이다.

円高의 克服을 위해 보다 생산성이 높은 機械·施設投資를 擴大함으로써 勞動生産性的 提高 및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合理化 努力이 併行됐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통틀어서 1970年代에 흑자축소 및 円高에의 對應을 위한 그들의 對外戰略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 輕工業分野를 값싼 勞動力과 低級技術을 결합할 수 있는 東南亞地域에 移轉하여 歐美先進國으로 수출하는, 말하자면 日本에서 歐美로의 직접수출로부터 東南亞를 그들의 間接輸出基地로 活用하는 式的 戰略變化를 보인 것이다.⁵⁾

이러한 對應方式은 日本의 黑字規模를 더욱 확대시키고 構造化함으로써 1980年代에 접어들면 더욱 거대해진 흑자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한층 높아진 円高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1980年代에 日本의 代表的 産業인 自動車産業을 중심으로 日本産業의 円高에 대한 對應을 살펴보자.⁶⁾

日本自動車産業의 生産組織은 完成車메이커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型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한부분인

5) 日本企業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投資를 크게 擴大하게 된 것은 1971年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對先進國輸出에 대하여 特惠關稅를 적용하도록 하는 制度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6) 이 部分은 '일본기업의 기술이전전략과 한국의 대응'(『지역연구』 제 2권 제 2호)과 『自動車産業의 競爭力實態와 그 強化方案』(대우경제연구소)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특정 部品메이커를 정점으로 하여 다시 그 子會社群과 下請企業群이 하나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갖는 生産組織으로서 小피라미드型 系列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 円高로 인해 競爭力이 弱해진 母企業은 母企業 자신의 철저한 合理化를 통해 코스트를 절감시키면서 下請企業에 큰 폭의 원가절감을 요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下請企業은 계열에서 탈락시켰다. 결과적으로 적응력을 가진, 보다 競爭力이 높은 下請企業을 중심으로 새로운 系列를 形成시킨 것이다.

1次 下請企業들은 母企業側의 원가절감 압력이나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U자형 生産시스템⁷⁾을 보다 확대시키고 內在化率을 제고시켰으며⁸⁾, 나아가서 部品の 統合化와 시스템화를 강화하여 母企業의 要求를 상당부분 흡수했다. 이러한 對應을 母企業의 입장에서 본다면 開發力量이 있는 系列業體를 中心으로 1次 下請企業群을 재편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自動車産業은 円高에 對應하여 國內의 生産組織을 이러한 形態로 再編成함과 동시에 海外進出도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의 海外進出은 기본적으로 円高로 인해 競爭力이 弱화되고 있는 小型車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海外進出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주목했다.

첫째, 소형차의 수요가 왕성할 것으로 보았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소형자동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歐美도 자동차시장 그 자체가 크며, 특히 日本의 競爭力이 강한 小型車部門에서 수요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자동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歐美는 小型車를 값싸게 만들 능력이 없어 세계적으로 소형차의 供給力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7) U字型 生産시스템이란 機械設備를 工程의 순서에 따라 U자형으로 配置하여 생산라인에 따라 製品을 하나씩 完成하게 하는, 일종의 흐름의 生産方式으로 大量生産方式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8) 下請業體에게 발주하던 部品類 중에서 母企業이 생산하는 것이 原價節減에 도움이 되는 部品類는 직접 생산함으로써 자체생산의 범위를 확대시켜 갔다.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완성차를 수출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편이 雇傭増大, 技術移轉, 部品産業의 발달을 통해 投資地域의 경제에 기여하게 되므로 日本企業의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中進國은 금후 일본에 이어 自動車供給基地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미리 진출함으로써 國際分業體制의 變化에 對應하려는 것이다.

해외진출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동기는 競爭業體가 現地生産을 시작했거나 現地生産을 擴張하는 경우에 대한 對應으로서 海外로의 進出 내지는 擴張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 따라 組立企業들이 海外進出을 擴大·強化시켜갔으며, 自動車部品 메이커들도 이러한 경향에 편승하여 적극적인 海外進出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部品메이커들의 進出形態를 살펴 보면 자동차의 國産化率을 높이려는 발전도상국들의 요구에 副應하는 形態로 이들 나라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部品の 國産化가 진전되면 고장률이 높아져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완성차메이커가 系列 部品메이커에게 현지기업에 대한 技術提供이나 資本參與를 촉구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부응하는 형태의 海外進出도 적지 않다.

요컨대 日本 自動車業界는 그것이 組立企業이건 部品메이커이건 海外側의 事情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円高에도 對應하는 式的 海外進出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日本의 자동차업체가 특히 중시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진출국을 선택할 때는 시장규모, 성장성, 컨트리 리스크(country-risk), 부품·재료의 확보가능성, 노동력의 質과 확보가능성, 임금수준 등이 주요한 고려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밖에 일본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어떠하며,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출국내의 공장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노동력의 質

的·量的 상황 및 임금수준을 중시하며 나아가서 시장에 대한 접근가능성, 산업기반, 파트너의 상황, 부품과 원재료 조달의 편리성 및 政策當局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주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日本 部品메이커들이 해외진출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면 공장용지 조성, 산업기반 정비, 노동자의 채용 및 훈련 등에 대한 정책당국의 지원, 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이다.

1985年 9月 플라자合意 이후 한국 등 아시아 NICS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면서 投資先을 아시아 NICS에서 아세안(ASEAN)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變化는 投資先으로서 아시아 NICS 및 아세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評價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아시아 NICS는 최근 임금수준이 급상승해 왔을 뿐 아니라 노동력의 확보가 어렵고 통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형 산업입지로서의 메리트가 소멸되고 또한 이들 국가에 供與되던 特惠關稅도 폐지되었으며, 무역마찰이 표면화되어 歐美에의 輸出據点으로서도 메리트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아시아 NICS의 投資與件에 비해 아세안 및 중국은 수출지향형 工業化政策을 추진하고 있어 외자도입을 위한 與件造成에도 적극적이다. 곧 저임금, 산업기반시설의 건설,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등 수출형 생산거점으로서의 조건을 정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의 投資進出이 아시아 NICS로부터 中國, 아세안으로 轉換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要因은 기술의 변화이다. 尖端技術의 開發이 진척됨에 따라 부품 및 기계 자체에 중요한 기술을 體化시키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부품과 설비의 판매과정을 통해 그 속에 체화된 형태로 기술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규격화된 부품이 고도의 기능과 신뢰성을 가지며, 低價로 대량 안정공급된다고 하는 조건이 정비됨에 따라 하이테크제품의 조립생산이 어디에서나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변화가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日本企業의 對外進出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아세안이나 중국 등으로 이전되어 가는 동시에 아시아 NICS의 役

劃은 보다 고도화되는 방향에서 域內分業에 의한 상호 보완관계를 形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기업은 生産立地를 노동집약적 공정과 기술집약적 공정으로 對別시켜 코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國際分業體制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다.

日本企業들이 설정하고 있는 國際經營體系를 보면 일본이 맡아야 할 역할은 아시아지역의 센타기능이다. 곧 産業基地로서의 日本의 機能은 기초연구와 생산기술의 개발·육성 및 시스템화를 통하여 새로운 분야의 高附加價值製品을 만드는, 말하자면 지식집약적 전략산업을 확보하는 일이다. 아시아 NICS에서는 자동화를 추진하여 고부가가치재와 기술 집약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지역에서는 보다 능률적인 生産方式을 정착시키고 응용개발 및 설계를 포함하는 기술부문을 강화하여 부품의 생산기지라는 위상을 확보하게 한다. 따라서 아시아 NICS는 일본상품의 OEM위탁생산이나 외주생산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아세안諸國은 量産部品の 집중적 생산을 통한 효율적인 一貫組立生産體制를 갖추어 구미지역에의 수출거점으로 活用하고 있다.

이상에 걸친 生産體系를 「日産」이 아시아지역을 무대로 구상하는 企業內 國際分業構想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i) 日産의 日本本社는 高附加價值 차량의 개발·생산에 특화하고 정밀가공부품, 전자부품 및 시스템부품 그리고 尖端技術과 量産에 의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담당한다.

ii) 아시아中進國인 대만에서는 「裕隆社」의 開發力 및 현지에 진출한 「日産」系列 部品메이커의 총체적 力量을 활용하여 상용차 및 엔트리 레벨 승용차의 개발·생산과 중간 기술수준 부품의 공급을 담당한다.

iii) 아세안 각국에서는 제휴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系列 部品메이커의 진출을 장려한다. 일본과의 分業 및 域內 補完關係를 강화하여 소량생산에서 오는 애로를 극복하면서 노동집약적 부품의 현지생산부터 착수하여 점차 기술수준을 높여가도록 한다는 등의 形態를 추진하는 식으로 円高에 對應하고 있다.

円高의 克服과 관련한 對外關係의 展開에서 주목되는 점은 가령 円高로 인해 特定製品이 價格競爭力을 상실하게 되면 歐美에서는 當該産業

이 그대로 海外로 나가게 되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그 産業에 投入되는 部品類 中 특히 勞動集約性이 강하기 때문에 人件費의 上昇으로 인해 製造原價를 높이는 部品類만 低人件費를 活用한다는 필요와 관련시켜 해외진출을 하게 된다.

이러한 戰略的 進出으로 인해 日本은 他 先進國에 비해 기술한 바와 같이 全方位産業組織⁹⁾이라 일컬을 정도로 全産業을 끌어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完全雇傭의 달성은 물론 최근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구인난을 향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9) 全方位産業組織이란 原材料만 수입하고, 그것을 加工하여 최종소비재에 이르는 全生産段階의 産業을 망라하여 가지는 産業組織을 가리킨다.

Ⅲ. 최근의 円高에 따른 日本의 産業構造調整

클린턴政權의 등장과 軌를 같이하여 진행되고 있는 円高는 특히 1달러당 100円台가 무너지면서 日本經濟에 상당한 構造的 變化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 円高에의 對應은 기본적으로 全方位産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高性能 機械·施設 및 尖端裝備 投資를 통해 勞動生産性を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企業活動過程에 내포된 낭비요소의 철저한 배제, 그리고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한 勞動力의 質的 改善을 꾀함으로써 價格·非價格 競爭力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기업들에 대해 이러한 투자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低金利政策을 건지 하였으며 임금인상도 勞動生産性上昇率에 비해 小幅에 그치게 하였다. 또한 달러表示 製品價格의 상승을 최소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賣出利益率도 극히 낮을 수 밖에 없었다. 全方位産業의 확보 및 종신고용제의 유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重層的 下請組織制度¹⁰⁾ 大企業과 下請業體와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円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再編成하였다.

나아가서 對外關係는 日本企業의 核心的 部分과는 接木시키지 않고 原價를 節減시키는 최소한의 활동에 그쳤다. 그리고 日本企業의 主導로 円高克服을 위한 産業構造를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行政規制는 円高로 인한 日本經濟의 취약부분을 최대한 活用하려는 海外企業의 침투를 적절히 견제하는 무기로 적절히 구사되었다.¹¹⁾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흑자규모는 오히려 확대되어 갔으며 또한 円貨의 購買力評價를 반영하는 對美換率과 實際 換率간의 괴리도 확대되었다. 前者가 1달러당 160円台인데 비해 실제로는 1달러당 95~100円台

10) 母企業 종사자의 一部를 下請業體에 보냄으로써 전체로서 모기업 상근종사자들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해 주고 있다.

11) 가령 輸入車에 대해 배기가스규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억제해 왔다.

로 되어 日本經濟는 달러表示 高物價構造로 된 것이다.¹²⁾

이러한 構造下에서 円高의 進行은 종래의 방식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게 함으로써 일본경제는 새로운 形態의 構造調整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日本經濟의 円高에 대한 對應을 살펴보기에 앞서 産業構造를 어떠한 形態로 변화시키려 하는지 日本通産省의 추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日本은 1990年代에 産業構造를 다각적으로 知識集約化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知識集約的 産業이 主導産業으로서 발전해 간다고 하는 全産業 中 知識集約的 生産比率의 획기적 증대 뿐 아니라 個別 産業內, 企業間, 企業內 그리고 素材産業部門, 加工産業部門을 망라하는 全産業分野의 생산활동과정에 高級技術人力을 풍부하게 투입하여 보다 고급화되고 다양한 능률적 생산방식을 추구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産業別로 보면 第 1次産業은 省力化를 위한 設備投資의 획기적 증대, 농업에 대한 시스템化, 裝置化의 추진 등으로 中間投入比率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第 2次産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술발전, 生産시스템의 改善에 의해 投入原單位의 低下가 진행됨으로써 直接部門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新製品의 開發, 複合技術의 導入 등에 필요한 企劃, 研究 엔지니어링 등 R&D 部門의 役割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第 2次産業 中에서도 加工組立産業은 生産額의 높은 신장이 예상된다. 이것은 여러가지 形態의 政策的 노력에 의해 設備投資가 에너지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活性化될 뿐만 아니라 高性能化, 多機能化를 위한 生産設備轉換과 多角的인 知識集約化의 展開에 따른 복합적 應用技術의 導入 및 情報處理에 필요한 機器의 整備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第 3次産業에서는 機械化, 合理化의 추진이 어렵고 供給行爲에 있어서도 人的 서비스의 介入이 불가결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生産性의 上昇 내지 코스트 절감이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新銳設備 및 經營資源을 적극적으로 投入함으로써 知識集約的 生産구조로 轉換시켜 가리라 예상

12) 對美換率과 實際換率과의 괴리는 日本經濟新聞 7月 21日字를 토대로 작성.

하고 있다.

1. 円高가 日本經濟에 미치는 影響

이러한 거시경제적 産業構造의 展開속에서 급박하게 진행되는 엔고, 특히 日本企業의 採算均衡点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1달러당 110円台가 무너진 95~100円台라고 하는 超円高下에서 일본기업은 어떠한 反應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가. 채산성의 악화

먼저 이러한 円高의 進行이 일본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日本의 輸出品은 기본적으로 技術獨占性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輸出市場에서 치열한 경쟁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달러表示 原價上昇要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동결시키거나 소폭밖에 올리지 못하므로 채산성이 극히 惡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경제신문(1994년 7월 12일자)의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円貨의 달러당 換率이 100円 내지는 95円으로 平價切上됨에 따라 賣出額과 經常利益이 모두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表 1〉 円貨價値의 變化에 따른 賣出額 및 利益의 變化
(主要 200企業의 1995年 3月期 豫想業績)

(單位: 億円, %)

	賣 出 額	經 常 利 益
1 달러당 95 円	2,117,449 (-4.8)	32,973 (-10.2)
1 달러당 100 円	2,180,028 (-2.0)	35,418 (-3.4)
期 初 時 点	2,215,766 (-0.4)	36,466 (-0.6)
3月 決算會社 全體 (期初時点)	3,408,599 (0.4)	69,716 (5.7)

주 : () 안은 前期比 增加率

이제까지는 円高에 의한 原價上昇壓力의 적지않은 부분을 下請中小企業에 轉嫁시키는 식으로 그 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었으나, 하청업체에 의 전가에도 한계가 있어 특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利益率 下落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 설비투자의 부진과 공동화 현상

다음으로는 設備投資의 不振과 空洞化現象의 발생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플라자합의에 따른 급격한 円高에의 대응책으로서 尖端施設을 대대적으로 導入하여 生産能率을 높였을 뿐 아니라 1980年代後半 거품경제에 기인한 수요의 급증에 따라 生産能力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거품경제가 붕괴됨에 따라 각 산업부문은 20~30%의 과잉시설을 끌어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與件위에서 円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첨단산업분야를 제외하면 시설투자를 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日本經濟의 輸出採算均衡點이 105~110円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円高가 갑작스럽게 出現함으로써 적지않은 기업들이 限界企業化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生産基地를 賃金水準이 낮은 개발도상국 수출현장으로 이전시켰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産業空洞化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다. 消費者의 低價品指向과 價格革命

消費者의 低價品 志向과 製品價格의 急落現象이 속출하고 있다.

종래 日本의 需要構造는 所得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所得彈力性이 높은 高級品 志向 내지는 需要의 多樣化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계속된 不況과 최근의 円高로 雇傭不安定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곧 低價品 志向性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需要構造의 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큰 폭의 價格引下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日本 價格體系의 特徵으로는 국내가격과 해외가격간의 괴리를 지적할 수 있다. 즉, 円貨의 購買力이 日本國內과 海外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현상은 종래에도 있었지만 최근의 円高는 이 괴리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消費財 뿐만 아니라 生産財 및 中間財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것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不況과 円高로 신음하는 일본기업들은 이렇게 높아진 국내재의 투입을 더 이상 受容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消費者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生存的 次元에서 内外價格差의 축소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적지않은 품목의 가격이 과격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인하는 누적된 在庫品の 處分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으로 그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2. 円高에 대한 日本經濟의 對應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經濟는 거품경제의 붕괴로 심각한 不況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빠른 속도의 円高가 진행되고 있어 日本의 個別企業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對應策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가. 生産基地의 海外移轉러시와 投入部品類의 수입 증대

円高에 대한 일본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대응책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및 投入部品の 輸入比率을 높이는 것인데, 최근의 円高는 자체에서 吸收할 수 없을 정도로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기 때문에 적지않은 산업부문에서 이 比率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한 예로 音響·映像(AV)機器業體들은 급격한 円高와 소비자의 低價格志向에 따라 이미 진출해 있는 해외생산거점에서의 生産比率을 높여 일본으로의 逆輸入을 擴大시키

고 있다. 이런 類의 輸入處는 주로 아시아 諸國이며, 특히 칼러 TV 및 부착型 VTR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구체적으로 「소니」는 지난 봄부터 低價格 칼러 TV를 말레이시아 現地法人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대형 TV 및 高附加價值製品만 생산하고 있다. 「파이오니아」는 高附加價值財類는 消費地에서 생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日本, 美國, 歐洲의 세 據點을 중심으로 사업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내년에는 이 방침을 코스트를 低下시키는 것으로 바꾸어 이 목표에 맞도록 생산입지를 再配置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5万円以下の AV 機器는 1995년까지 생산시설을 모두 해외로 이전하여 逆輸入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海外進出의 再配置를 통해서 円高下에서도 이익을 내는 생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NEC(日本電氣)는 部品・資材의 購入總額에서 海外調達品이 점하는 比率을 1993년의 15%수준에서 1995년까지 20~30%로 끌어올림으로써 코스트削減을 꾀하고 있으며 情報通信 大企業인 富士通는 1996년까지 海外調達比率을 지금의 10%수준에서 30%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方針下에 값싼 良質의 部品・資材의 調達處를 치밀하게 조사함은 물론 下請 部品業體의 海外移轉도 추진하고 있다.

三菱電氣는 重電・家電製品의 資材코스트를 인하하기 위해 한국의 포항중합제철 및 독일의 틸센社로부터 鋼材를 수입하며 독일 化學製品生産業體인 BASF 社의 한국공장으로부터 樹脂를 수입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항중합제철과 틸센社에 대해 長期的 安定供給 可能性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節減의 일환으로서 이와 같이 部品・資材類의 海外調達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下請業體로부터 조달받던 部品・資材類를 母企業에서 직접 생산하는, 곧 內製化의 比率을 제고시키는 식의 접근방법도 꾀하고 있다. 컴퓨터의 記憶母體인 하드 디스크를 움직이는 精密모터部門에서 세계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日本電産의 경우 2年前까지는 海外調達비율이 제로였으나 1994年末까지 30%, 1995년까지 50%로 끌

13) 日本經濟新聞 및 『超円高』(日本經濟新聞) 참조.

어울리는 한편 部品・資材의 內製化比率도 현재의 30%수준에서 50%로 끌어올림으로써 內製化와 外注의 均衡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다.

円高에의 對應과 관련하여 製造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경제신문의 앙케트조사 결과 70% 이상의 기업이 해외로의 생산이전이나 해외로부터의 부품・자재 조달을 증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移轉對象國家로는 東南아시아 및 中國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製造業의 아시아로의 이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앙케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생산을 증가시키겠다는 企業이 70.7%, 部品・資材의 海外調達을 증가시키겠다는 企業이 87.8%, 그리고 製品輸入을 증가시키겠다는 企業도 60.9%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금후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임은 틀림없다.

나. 戰略的 提携의 擴大

円高에의 對應策의 하나로써 특히 주목되는 것은 日本의 대표적 기업들이 自社內에서의 성장의 한계를 타파함과 동시에 코스트절감을 꾀하기 위해 外部資源의 적극적 活用을 통한 코스트 인하와 새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이른바 戰略的 提携가 대담하게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戰略的 提携가 종래의 系列化와 다른 점은 계열이 생산의 하청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인데 비해 전략적 제휴의 對象은 企業活動全般에 관한 것이며 兩 提携企業의 핵심적 과정의 결합이라고 하는 對等한 關係의 設定이다.

일본에서 전략적 제휴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電子産業을 중심으로 그 實態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까지의 提携形態는 生産提携 및 販賣提携가 중심이었으나 그러한 제휴형태는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共同開發, 合併事業 및 資本參加 形態가 빠른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막대한 研究開發費의 투입을 요하는 첨단기술의 개발이 많아지고 있는 관계로 제휴 양상도 大企業間 제휴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제휴활동에 투입되는 자금도 대형화되고 있다. 日立製作所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의 256메가 D-RAM 공동개

발에는 約 200億円, 富士通과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MD)에 의한 휴레슈·메모리생산을 위한 합병사업에는 約 900億円の 費用投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提携의 大型化는 자연히 國際間 提携를 증가시키고 있다. 提携의 國際化를 특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는 電子製品의 全球市場化를 들 수 있다. 그리고 國內企業들은 비슷한 종류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競爭關係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에 제휴의 이점이 적다. 또한 정치적 압력 등 국제비지니스를 행함에 있어서 직면하기 쉬운 장애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제휴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전략적 제휴의 事例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東芝와 IBM은 1989년에 합병형태로 DIT(Display Technology)社를 설립했는데 이는 기술적 시너지效果를 최대화함과 동시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¹⁴⁾ 生産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 提携는 半導體 및 中小型 TFT(薄膜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液晶事業을 통해 축적한 東芝의 제조기술과 IBM의 기초연구 및 回路設計 등에 관한 디자인기술을 결합하는 것이다. 또한 兩社가 모두 大型液晶의 이용자인 랩탑 퍼스널 컴퓨터 事業을 가지고 있어 自社消費의 부분을 높임으로써 投資負擔과 販賣리스크를 輕減시킬 수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日立製作所와 TI는 16메가 D-RAM의 共同開發을 개시했다. 兩社 모두 기술적으로는 自社內開發이 가능했지만, 集積度の 向上에 따라서 증대되는 開發費負擔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兩社의 利害가 일치되었던 것이다.

16메가 D-RAM의 共同開發을 개시한 후 제휴는 16메가, 그리고 256메가 공동개발로 확산되어 갔다. 對象製品도 D-RAM에서 S-RAM(記憶保存動作이 필요한 때 수시로 써 넣거나 읽어 내는 메모리)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TI가 日立製作所に S-RAM의 디자인을 라이선스하고 日立製作所는 TI에 S-RAM의 생산 노하우를 供與했다.

14) 兩社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開發이기 때문에 生産된 것은 兩社가 책임지고 消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휴가 발전해 갈 수 있었던 요인은 최초의 共同開發에서 비용의 부담이 적었다는 점, 提携의 범위가 研究開發에 한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마찰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美日 半導體摩擦이 격화되는 중에 생겨난 제휴였기 때문에 當事者間에는 성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이 강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工場獨立採算制를 채택하고 있었던 日立製作所로서는 증대되는 研究開發費의 염출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資金負擔을 덜어주는 이 提携는 극히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日本의 代表的 電子製品業體인 富士通의 경우 미국 ICC 社와의 기술 개발제휴에 의해 C-MOS 메인 후레임, 미들웨어 및 오픈(open)·PC분야를 개발하고, ROSS 및 HAL 社와의 제휴에 의해 고성능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등 세계의 다양한 업체와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이러한 공동개발의 추진으로 1992년의 경우 당초 책정했던 3,200億圓의 연구개발비를 2,700億圓台로 축소시킴으로써 製造코스트를 크게 낮춘 것이다.

또한 合理化活動의 일환으로 富社通는 56,000名の 종업원을 화이트 칼러 계층을 중점 정리하여 1995년말까지 50,000명으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남아있는 직원의 戰力を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電子通信 등을 활용하여 情報의 共有體制를 강화시키는 등 人員減縮에서 오는 生産低下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 高附加價值商品 開發에 經營資源 集中 투입

生産施設의 해외이전으로 초래되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보다 고도화된 상품, 보다 소프트화한 商品製造에 대해 經營資源을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격심한 불황속에서도 收益을 내고 있는 기업들 중 40%가 製造業, 60%가 非製造業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業種別로는 ‘建設工具’, ‘都·小賣業’, ‘醫藥品·醫療機器’, ‘食料品’, ‘서비스’ 및 ‘機械·기타機器’ 등인데, 이들 기업들이 수익성을 순조롭게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제조업의 경우 대체로 첨단 상품 및 기술을 개발하고, 합리화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품의 소프트화에 역점을 두기 때문이다. 소프트화란 빨리, 즐겁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쉽다고 하는 편리성, 기분 좋고, 재미있고 스릴을 느끼게 하며 話題性이 풍부하고 意外性を 내포한 快適性, 안전하고 건강에 좋고 환경에 좋다고 하는 안정성 및 탁월감, 學習, 自己實現, 自立, 交流 및 奉仕를 내포하는 人間性 등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도 편리성과 쾌적성을 내포한 상품들이 최근 일본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일본기업들로서는 円高 및 高賃金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상품의 生産現場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한편 소프트한 상품의 개발에 경영자원을 集中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合理化 및 非競合的 분야를 追求하는 素材生産

日本의 比較劣位産業分野인 素材産業의 円高에 대한 對應을 보면 1달러당 100円이 될 때까지는 円高에 따른 製造原價上昇分을 製品의 生産縮小 및 이와 연동시킨 價格上昇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円貨의 價値上昇으로 1달러당 100円線이 무너지자 일본의 素材市場에서 國內財와 輸入品間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져 종래와 같은 國內財價格의 一方的인 引上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의 合併 등을 통해 코스트를 절감하거나 主力商品을 輸入品과 경합하지 않는 분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表 2 參照). 가령, 부품코스트 삭감에 필수적인 자동차메이커로부터 가격인하 요청을 받은 카본 블랙(고무着色劑)業體인 「東海 카본」은 円高에 직면하여 작년까지만 해도 價格引上交渉을 벌여 왔으나 금번의 경우는 內需 減少로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값싼 수입원료의 사용비율을 높여 코스트를 삭감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편 「日本觸媒」는 円高로 인해 가격이 한층 하락된 수입품때문에 에칠렌 그리콜의 생산을 50%이상 줄이는 대신 주요상품을 高温에서의 輸送으로 인해 수입품이 전혀 活用될 수 없는 에칠렌에키사이드로 轉換하고 있다.

〈表 2〉日本素材部門의 円高에의 對應패턴

對 應 패 턴	品 目
1) 코스트 削減으로 採算을 개선	合成고무, 카본 블랙
2) 輸入品과 競合하지 않는 分野로 主力商品을 轉換	合板, 에칠렌그리콜
3) 輸出市場에서 가격인상	半導體, 印刷用紙
4) 輸出去來를 円表示로 變更	絶緣紙
5) 國內에서 가격인상幅 壓縮	合成樹脂

資料: 日本經濟新聞(1994年 7月 20日字)

마. 價格革命을 定着시키기 위한 리엔지니어링의 추진

流通企業 主導로 기술한 바와 같은 在庫品處理 중심의 價格大幅引下 競爭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市場價格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價格間의 현격한 괴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대폭적인 價格引下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것으로 정착되어야 同一한 用途, 同一한 質의 製品이 日本國內外間에 존재하는 현격한 價格差異를 극복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日本에서는 이러한 가격차이의 극복과 관련한 업무의 재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 보면 종래까지의 지나친 多品目小量生産體制를 지양하고 品目數를 상당수 축소시킴으로써 單一品目當 규모의 경제효과를 높이고 부품의 共通化를 추진하며 各 品目別 라이프 사이클의 단축에서 오는 減價償却費 負擔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店鋪開發과 物流시스템의 再構築에 의한 物流費削減 努力도 여러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가령 新日本製鐵은 國內物流시스템의 效率化를 통해 일본국내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한 輸入鋼材에 對抗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物流子會社인 日鐵流通센타의 荷役設備를 추진하고 있다. 73億円을 投資하여 大型 크레인을 설치한 全天候버스(港灣設備)를 東京港에 완성시켰으며 대형 트레일러를

22台 도입했다.

NHK 및 川崎製鐵은 鐵鋼製品中 운송과정에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條鋼製品專用的 U 字型 컨테이너를 실용화했는데 이러한 物流 시스템의 정비로 인해 物流費를 크게 삭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하나의 業務再構築作業으로서 流通經路를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가령 큰 폭의 價格引上競爭下에서 收益構造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슈퍼 마케트가 力點을 두는 商品分野 뿐 아니라 백화점이 주력하는 패션상품분야에서도 중간수입상을 배제하고 直接調達의 길을 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적인 상품개발 내지는 도매업자에 의존하지 않는 戰略的 販賣手法의 開發 등을 통해 流通코스트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려는 노력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바. 價格引下를 誘導하기 위한 入札方式의 도입

단순한 原價節減이 아닌 획기적인 原價節減努力은 重層的 下請組織이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산업조직에까지 상당한 變更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타이어 製造業體들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들이 금년에는 5~7%, 그리고 내년에는 15~20%의 가격인하를 요구할 것이며 1996년부터는 종래의 去來關係를 무시하고 國內外 무차별 入札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통고해 오고 있다고 한다. 타이어업체는 부득이 合成 고무 등 原料製造業體에 自動車業體로부터 통고받은 事項과 동일한 내용을 통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산업계는 생존적 차원에서 코스트삭감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품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各 業界의 이러한 코스트削減努力은 下請系列業體에게 部品・資材類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요구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系列・下請關係라고 하는 日本特有의 安定的 去來關係가 균열되고 있다.

이상에 걸쳐 円高에 대한 民間企業界의 대응을 살펴보았는 바, 政策當局도 通産省을 중심으로 中長期的인 円高對策을 수립하고 있다.

日本通産省은 1달러당 100円을 밑도는 상태가 지속되면 輸出企業을 중심으로 일본의 産業基盤이 흔들리고 國內産業이 空洞化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中小企業의 기술발전을 지원하는 法을 새로이 制定, 円高로 競争力を 喪失한 분야부터 새로운 分野로의 진출을 촉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공장을 賃貸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支援하여 國內의 雇傭을 확보함으로써, 産業의 공동화를 막으려 하고 있다.

즉, 情報・通信・環境・住宅 등 今後 유망시장 진출을 노리고 技術開發에 착수하는 中小企業에 대해 低利融資 및 稅制上的 우대책을 확충・강화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들 新興企業의 投資負擔을 경감해 주기 위해 公傭단지를 조성, 공장을 賃貸해 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円表示 BA(銀行引受어음)시장 등 円資金을 短期運用하는 시장을 육성하여 円의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円表示 수출비율을 높임으로써 円高에의 영향을 緩和시켜 보려고 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經濟構造를 換率變動에 강한 체질로 轉換하기 위해서는 對外去來에 있어서 円表示의 去來比率를 높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損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며 円表示 對外去來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円의 國際化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円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BA市場을 육성하여 円표시의 決済手段을 充實化시키고 短期國債償還利益에 대한 源泉課稅 撤廢, 그리고 상업어음(Commercial Paper)시장의 發行規制條項을 크게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規制緩和 및 内外價格差의 시정 등 構造改革을 통해 附加價値가 높은 분야로의 투자를 확대하게 함으로써 円高로 인한 산업공동화의 가능성을 克服하려고 하고 있다.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¹⁵⁾ 곧 内外價格差가 시정됨으로써 실질소득이 증가되고 그것이 다시 勞動需要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15) 日本에서의 規制緩和 및 市場開放의 경제적 효과산출에 관해서는 『超円高』(日本經濟新聞)에 소개된 日本總合經濟研究所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였음.

값싼 외국제품이 국내에 大量으로 流入됨으로써 國內産業의 空洞化를 招來하여 고용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다.

日本總合研究所의 조사결과, 긍정적 效果로서 内外價格差 是正에 의한 수요효과가 44조 8千億圓, 雇傭效果가 512万人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이너스효과는 輸入増加에 의한 國內生産減少에 의해서 需要效果가 32조 9千億圓 감소하고, 雇傭도 410万人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綜合하면 需要創出效果는 11조 9千億圓, 고용은 102만인 증가함으로써 規制緩和・開放化는 일본경제에 있어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다.

同 調査는 規制撤廢에 의해서 일본의 GNP대비 수입비율이 7.0%에서 일본을 제외한 先進7個國 平均인 14.6%로 상승할 것을 상정하여 計算하고 있으며, 内外價格差는 시장개방에 의해서 日本製品과 輸入品の 가격경쟁이 加速化되어 일본의 商品價格이 뉴욕, 런던, 파리 및 함부르크 등 4개 도시 평균까지 저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計算結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規制緩和 및 開放化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더 클 뿐 아니라, 低附加價值産業을 縮小시키고 高附加價值産業을 확대시킴으로써 生産要素의 능률적 활용을 실현하는 질적 개선효과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円高에의 對應策으로서 규제완화와 내외가격차의 시정을 점진적으로 추진시켜 가리라 예상된다.

IV. 韓國의 經濟發展構造와 對日關係¹⁶⁾

1. 韓國의 經濟發展構造

韓國經濟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輸出指向型 成長政策의 추구에 따라 加工貿易型 경제발전구조를 정착시키게 됐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때부터 한국경제는 潛在的 比較優位産業을 적극적으로 育成하여 수출산업화하는 반면 比較劣位産業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수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國際分業構造의 일부로서 編入되어 간 것이다.

1960년대부터 1970年代에 걸친 한국의 潛在的 比較優位産業은 單純勞動集約的 輕工業類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을 輸出産業化하기 위한 政策當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따라 潛在的 輸出産業이 顯在的 수출산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러한 製品의 수출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生産에 投入되는 機材 및 原資材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一連의 輸出可能産業의 輸出化에 역점을 둔 정책에 따라 韓國經濟는 比較優位産業을 급속하게 증대시키고 比較劣位産業을 상대적으로 縮小시키는 이른바 不均衡的 성장구조가 定着되었다.

1973년 1월의 ‘重化學工業化宣言’에 따라 韓國經濟는 산업 및 貿易構造를 고도화시키면서 經濟的 自立度を 높이는 重化學工業의 본격적인 國內代替化를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內需市場의 狹小性에도 그 原因이 있었지만 중화학공업화가 충분한 國內代替化期間을 가짐으로써 當該産業들의 技術, 資本蓄積을 통한 충분한 능률화를 달성시키고 그 기반위에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큰 폭의 수출수요를 고려에 넣고 國際經濟單位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더구나 일시에 다양한 부문에 걸쳐 추진한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重化學工業化는 분야별로 漸進的으로 多樣化시켜 간 것이 아니고 一舉에 너무 과도하게 각 部門에 걸쳐 投資活動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각 分野별로

16) ‘韓日間 經濟摩擦과 對日技術接近의 새로운 視角’(李鍾允)을 土臺로 작성.

導入한 技術을 消化·吸收하고 韓國的 條件에 맞도록 自己技術로 改良·발전시키지 못한 채 海外技術의 單純模倣에 그쳐 버렸다. 뿐만 아니라 內需市場의 制限性으로 인해 제대로 競爭力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大大的인 수출드라이브를 전개했기 때문에 韓國經濟는 蓄積한 實力以上으로 과대평가되어 外國으로부터 경계와 견제를 받거나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중화학공업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投資活動은 輕工業化期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技術, 熟練勞動에 대한 社會的 需要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것은 纖維産業, 雜貨類에 비해 自動車, 鐵鋼, 電子 및 造船産業 등의 生産활동에는 월등히 높은 기술, 숙련인력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類의 技術, 熟練人力은 단기간에 양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人력을 자체 양성하려 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손쉽게 스카우트하려는 傾向을 나타냈다.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기술, 경영 및 숙련인력이 충분히 蓄積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重化學工業分野에 진출한 企業들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人력확보경쟁에 나섰기 때문에 기술, 숙련인력을 중심으로 스카우트熱風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스카우트경쟁으로 인한 技術, 經營, 熟練人力의 빈번한 이동은 企業內 기술·경영기법 축적을 어렵게 하였다.

스카우트熱風으로 인한 賃金水準의 急上昇, 지속적인 고도성장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한국경제가 조달할 수 있는 水準을 크게 초과하는 資金需要, 그리고 充分的 競爭力이 구축되지 않는 유치상태의 産業을 수출산업화하는 데 소요되는 直·間接 補助金 支援 등은 한국경제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악성 인플레이션 상태를 노정케 하였다. 인플레이션 상태는 土地, 建物 등 不動産所有者 및 부동산 投資活動을 통해 富와 소득을 크게 증가시킨 一種의 不勞所得階層과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俸給生活者 및 그러한 활동에 실패한 所得階層間에 심한 分配構造의 不均衡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분배구조의 歪曲은 生産구조의 왜곡으로 연결되어 가령 한국의 1인당 GNP水準에 비추어 高級車種인 中大型車의 生産比率를 크게 높였다. 요컨대 國內需要構造의 歪曲으로 인해 比較優位分野가 돼야 할 소형차는 規模의 經濟效果의 극대화 및 技術投資의

집중화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한편 수출화하기에는 아직 이른, 內裝材의 輸入誘發段階인 중형차마저도 생산시설의 가동을 유지를 위해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선진국기업과 不必要한 摩擦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導入技術에 의존하는 大企業部門과 在來 中小企業部門과를 보완·협력관계로 유도하는 노력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近代의 大企業部門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部品類 중 적지않은 部門을 최근까지도 海外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在來 中小企業들은 사실상 國際下請者的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産業組織의 有機的 체계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이러한 排他的 獨立的 산업조직 때문에 兩者가 利害를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고 대립·摩擦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전자 등 組立産業의 경우 兩 部門의 협력에 의해 技術開發을 해야 할 경우가 많았음에도 생산적 協力體制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모기업인 조립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기술개발력을 축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다.

韓國의 경우는 경제발전과정에서의 外資依存度가 日本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韓國企業을 海外多國籍企業의 세계적인 경영전략의 일부로 編入되게 함으로써 自主的 성장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國內企業間의 제후를 악화시켰다. 또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海外企業의 直接投資도 적지않은 비율을 점하게 했는데 이들 外資系企業들은 본국에 소재하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서 경영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정책목표와 衝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상에 걸친 一連의 發展方式은 對外關係, 특히 對日關係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韓國의 對日關係

經濟發展方式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한국의 對日經濟關係는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補完性과 摩擦性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補完性의 측면을 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輸出主導型 성장정책은 당시 潛在的 比較優位分野인 單純勞動集約的 消費財生産의 수출증대를 현재화하기 위해 當該産業의 生産활동에 투입될 技術, 資本財, 原資材를 필요로 했다. 반면 일본은 自國經濟의 高附加價值, 重化學工業化, 技術集約化를 위해서 기술이전, 직접투자 및 자본진출의 형태로 한국경제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70年代는 韓國經濟의 重化學工業化도 能率化를 통한 多樣化가 아니라 성장모습을 對内外에 과시하기 위한 弘報목적의 다양한 重化學工業化를 적극 추진하였던 것이다. 日本은 자국경제의 일층의 高度化에 필요한 안정적 市場確保라는 차원에서 한국경제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요컨대 한국경제는 일본경제를 外部經濟로 활용하여 廣範한 중화학공업분야에 한국기업이 비교적 손쉽게 착수 가능한 領域(주로 組立分野)을 중심으로 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경제는 한국경제의 기업화에 필요한 技術 및 노우 하우(주로 周邊技術)를 적극 지원하면서 그 生産활동에 필요한 施設, 機械類 및 核心技術이 體化된 基幹部品類를 판매하는 식의 보완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한국은 부족한 資本과 技術을 補充하기 위한 방편으로 海外企業의 直接投資를 활용하였는 바, 이에 의해서도 한·일간에는 상호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가령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한국경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單純勞動集約的 消費財産業 분야에서 比較優位를 가지고 同 産業의 수출증대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는데 바로 이 시기에 日本經濟는 이 분야에서 比較劣位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 UNCTAD의 결정에 의하여 先進國은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971년부터 無關稅 내지 低關稅率을 적용하는 特惠關稅制度가 창설되는데 일본경제는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는 한편 黑字縮小를 위해 단순노동집

약적 소비재산업의 對韓進出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그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계나 原資材는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이므로 일본경제로서는 一石三鳥, 四鳥의 효과를 거두게 되고 한국경제로서도 이들 기업의 유치를 통해 雇傭增大, 技術導入 및 輸出增大 등의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양국의 이익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摩擦的 측면에 焦點을 맞추어 보면 무엇보다 韓國經濟의 발전방식은 日本經濟를 外部經濟로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함으로써 日本經濟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對日派生輸入이 가속된다. 반면 일본경제의 성장방식은 雁行形態의 접근방식 내지는 원세트주의 등과 같은 수입억제형이다. 양국의 성장방식의 차이에 따라 한국의 대일역조는 확대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기에 양국의 필연적인 마찰원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강력한 系列・下請制度和 複雑하고도 閉鎖的인 流通構造는 韓國製品의 대일수출을 더욱 어렵게 하는 制度的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多樣化를 추구함으로써 對日誘發輸入 增大라는 補完的 측면보다는 일본과 해외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특히 이렇게 다양한 重化學工業分野에 國際經濟규모의 기업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內需市場이 협소한 상황에서는 수출비중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個別産業의 충분한 育成을 통해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간 것이 아니고 일거에 多樣한 産業을 벌인 후에 輸出競爭力 強化를 위한 能率化를 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核心尖端技術의 수요가急速하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자 한국으로서는 이들 核心尖端技術의 對日移轉要求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核心尖端技術의 移轉문제를 둘러싼 韓・日間の 對立이 尖銳化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分配構造의 歪曲과 관련, 高所得層 需要를 겨냥한 高級財의 國內對替化가 추진되는데 이 경우에도 同 製品의 생산에 필요한 機械類, 部品類는 대체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한・일간 補完關係가 形成된다. 그러나 일예로 自動車産業에 있어서는 수출품 종류의 범

위가 主力部門인 小型車段階에서 점차 중형차의 비중을 확대시키게 되자 일본자동차산업과의 마찰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日經濟關係는 보완성과 마찰성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간 摩擦構造는 한국경제의 실력이상의 突出과 日本經濟 運營方式의 지나친 自國中心主義 내지는 협력적 보완의식의 缺如가 복합적으로 얹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兩國 모두 자국에 도움이 안되는 不必要한 마찰은 極小化하도록 해야 하며, 이해관계상 불가피하게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論理的 합리성에 입각한 중·장기적 조정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V. 円高活用을 위한 韓國經濟의 새로운 接近方式

日本經濟는 1971년의 스미소니언協定 이후 거듭된 円高에 직면하자 자국의 특징적인 발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企業의 能率化와 對外關係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약화된 競爭力을 회복·강화시킴으로써 일시적 충격을 극복하고 후자를 擴大시켜 왔다.

그런데 이번 円高는 종래의 對應方式으로는 克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래의 발전방식에 상당한 修正을 加하는 式의 對應을 보이고 있다.

그 특징적인 對應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研究開發이라고 하는 企業의 核心的이고 秘密을 요하는 분야에서 초차 原價節減 次元에서 국내외 外部企業과의 제휴를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경제가 이러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原價節減 필요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술발전단계가 종래의 導入技術 改良的 기술개발단계로부터 源泉技術 자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의성이 요구되는 기술의 개발에는 量的·質的으로 월등히 많은 研究開發資源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은 부족한 연구개발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國內外 關聯企業과의 제휴를 모색하게 된다. 특히 円高 壓力과 研究開發費의 증대 등으로 인해 자본제휴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는 円高로 인한 코스트 上昇部分을 母企業과 下請企業이 적절히 分擔함으로써 일본의 이른바 重層的 下請組織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산업조직이야말로 일본기업의 강력한 對外競爭力의 원천이다. 뿐만 아니라 母企業과 下請企業간 결속의 공고성으로 인해 해외로부터는 일본시장 침투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非關稅障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급변 円高에 따른 모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部品類 價格引下 요구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下請業體로서는 모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下請調達 대신에 入札方式으로 바

귀는 등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重層的 下請組織이라고 하는 일본의 발진 구조 자체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세째, 日本에서 價格革命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큰 폭의 價格引下競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유통구조를 극히 단축시킴으로써 最終消費者에 이르는 각 流通段階와 流通마진을 크게 縮小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종래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침투를 극히 어렵게 했던 일본의 閉鎖的이고 複雑한 유통구조가 금번 円高와 더불어 크게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금까지 円高에 대한 對應에서도 보여왔던 것이지만 部品 및 資材類의 海外로 부터의 導入이나, 海外投資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日本經濟新聞의 앙케트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간다고 한다면 일본의 産業構造는 상당한 폭의 構造調整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日本經濟를 보면 比較優位는 존재했지만 製造業에 관한 한 比較劣位는 不分明하였는데, 이러한 構造調整이 이루어지면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선명히 드러나는 무역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아직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일본정부가 輸入抑制와 直・間接으로 緊密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諸 規制조치를 빠르게 緩和하고 있는 바, 이 점도 일본경제의 國際分業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예상된다.

이상에 걸쳐 지적인 円高에 따른 一連의 日本經濟環境의 변화는 한국기업의 日本市場 浸透를 크게 유리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興件의 출현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對日輸出의 擴大, 나아가서 對日赤字幅의 축소를 이룩할 것인가?

이번 円高克服을 위한 일본기업의 對應에서 종래와 확연히 다른 점은 生存的 次元에서 전통적으로 지켜 온 對內系列指向性を 止揚하고 無差別的 合理主義를 상당 부분 수용하려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1. 日本 生産技術의 導入을 통한 韓國企業의 리엔지니어링

일본의 主要企業들은 原價節減을 위해서 값싼 해외부품·자재류의 調達比率를 과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높이고 있으며, 海外調達을 자사의 品質 조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相關기업들의 海外進出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對日輸出의 增大, 나아가서 對日赤字의 縮小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일본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로 집약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는 일본기업들의 技術的, 品質的 要求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래 일본기술의 특징은 歐美에서 도입한 源泉技術을 전기술공정에 걸쳐 생산현장의 조건에 맞도록 점진적·지속적으로 非經濟的 部門을 철저히 除去하는 한편 非能率的인 面을 능률화시켰기 때문에 일종의 改良技術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技術改良의 결과적 산물로서 도요타자동차회사의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방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在庫를 제로(zero)화시키는, 이른바 '工程革命'을 낳았으며, '人的·物的 生産要素의 多技能化'를 실현시킨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의해 日本型 技術이 蓄積·形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로 제조된 일본상품은 고도의 자원·에너지 절약적이며 편리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기업의 海外調達分 중 우리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일본 기업들이 축적한 改良技術이나 生産技術을 우리기업속에 導入·體化시킴으로써 그들의 기술적·품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部品·資材類를 生産·供給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일본기업속에 축적된 日本型 技術을 우리기업속에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기술을 지금과 같이 건당,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각 산업 및 주요기업 속에 축적된 全技術體系의 유기적 관계를 철저히 分析·把握하여 우리의 기술체계와 대비시켜 그들의 특

징적인 우수한 점을 체계적으로 導入・消化해 가는 접근방법을 활용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된다.

일본형 기술은 그 성격상 매뉴얼(manual)로 되어 있기보다는 個別 技術者의 技術・技能 속에 체화되어 있으므로 上述한 研究結果를 土臺로 體系的으로 일본의 기술인력을 大的으로 유치하거나 우리나라 기술자의 日本派遣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일본형 기술속에 파고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日本技術者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은퇴하거나 실직한 관련 기술자들을 유치하면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우리 기술자의 日本派遣과 관련해서는 막연한 형태로 파견하지 말고 科學 및 技術系統의 日本留學經驗者를 보다 組織的이고 體系的으로 활용하면 일본기술의 흡수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海外로 進出하려는 日本企業을 적극적으로 誘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일본으로 再輸入하기 위해 低賃金國에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기업의 유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對日輸出増大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日本型 기술의 효율적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본기업들의 對韓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 육성・장려할 만한 潛在的 競爭力을 가진 技術分野에 집중시켜 기업화의 과정에서 가장 애로요인의 하나인 工業團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廉價로 활용하게 하는 등 社會間接資本의 擴充・造成과, 租稅面의 優待措置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대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약 이러한 우대조치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일본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경우 얻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한다면 그만큼 코스트의 투입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海外에 진출하려는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에 의해서 예상되는 한국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i) 日本企業에 의한 일본에의 逆輸入, 곧 우리의 대일수출을 증가시켜 對日赤字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일본과의 水平的 分業을 확대시킬 수 있는 호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그간 일본기업이 축적한 資源 및 에너지 節約的 改良技術, 生産技術을 자연스럽게 移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본 특유의 생산기술은 우리나라 상품의 對外競爭力強化 次元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기업은 그간 歐美・日本 등 선진제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는데 우리는 도입기술의 소화・흡수 및 부분적인 改良段階에 그쳤을 뿐 그 기술을 韓國的 條件에 맞도록 再編成하거나 철저히 合理化시키는 경지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함으로써 生産過程에 資源浪費 내지는 非能率的 부분을 적지않게 내포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일본형 기술의 우리나라 기업에의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과정을 보다 자원절약화하고, 능률화함으로써 제조원가의 절약이나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對外競爭力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iii)보다 高級 技術이나 産業을 우리나라 經濟속에 導入・發展시키는 경우 투자를 선행하고 그 生産活動에 필요한 人力을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초기단계에 적지않은 코스트를 지불하기 쉬운데 海外企業이 먼저 投資・生産활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해 놓음으로써 그러한 人的資源의 축적위에서 투자・생산활동을 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은 상대적으로 人的資源 育成 코스트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상 지적한 일련의 經濟的 效果를 극대화시키는 綿密한 計劃하에서 日本企業의 한국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環境整備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2. R&D 活動에서 日本企業과의 戰略的 提携 擴大

최근들어 일본기업들은 円高에의 對應策의 일환으로서 研究開發費 削減 및 연구자원 補強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정에서의 戰略的 제휴를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그들의 이러한 提携活動에 적극 참여하면 그만큼 經濟的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技術水準은 아직 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위한 共同研究는 그들이 蓄積한 社會間接資本을 활용할 수 있고, 能率的, 經濟的 研究開發이라고 하는 노우 하우를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연구개발비를 절감함으로써 製造原價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지금 日本企業들이 전개하고 있는 研究開發活動에 있어서의 戰略的 提携는 앞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日本 大企業과 歐美 大企業들과의 提携이다.

우리의 경우 일본 일류기업들과의 技術提携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기업과의 提携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극성을 보일 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반드시 日本 一流企業들과의 제휴에만 급급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를 廣範圍하게 찾으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大企業에서만 研究開發費의 削減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円高로 인해 적지않은 기업들이 円高 극복적 차원에서 연구개발비의 삭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략적 제휴란 제휴당사자들간에 서로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이면서 이질적인 연구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나아가서 韓·日 企業들간에 이러한 提携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研究資源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技術情報市場이 확립되어 있으며¹⁷⁾ 또한 技術情報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政府산하 각급 研究

17) 日本 通産省의 후원에 의해서 설립된 테크노 마트(Techno-mart)에서는 技術 供給者와 技術需要者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通産省 산하의 生産技術院은 技術情報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機關들이 이러한 일본의 研究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수집하여, 관련 기업들에게 소개해 준다면 상당한 범위에 걸쳐서 提携의 가능성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日本留學經驗者들이 상당수에 달하므로 이러한 제후과정에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日本市場에 대한 流通經路의 재구축

일본경제에서 최근 円高와 더불어 나타난 價格革命 및 流通經路의 단축, 그리고 重層的 下請組織의 부분적인 파괴현상은 일본시장에 침투하려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유리한 環境의 出現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요한 대일 수출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工場渡價格과 일본내에서의 最終需要者價格間에 어느 정도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여 특히 마진폭이 큰 품목에 대해서도 유통마진이 높아진 原因이나 所在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유통마진을 높이는 原因이나 所在가 확인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對應策을 세움과 동시에 유통마진을 획기적으로 縮小시킬 수 있는 流通經路의 短縮에 경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가령 消費財에 관해서는 日本百貨店들이 수입업자들을 배제하고 메이커와 直去來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단독으로 또는 컨소시엄(중소기업의 경우)을 형성하여 일본의 주요 백화점에 직접 파고드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의 輸送距離가 극히 짧아 사실상 日本國內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 유의, 이제 우리의 大메이커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일본의 實需要者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韓國商品을 專門적으로 취급하는 流通組織 및 流通機構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통기구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본내에 뿌리깊게 형성되어 있는 對韓偏見을 극복하기 위하여 美國과의 合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4. 國別 通商戰略의 재구축

엔고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거대한 흑자규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직접적 원인은 대일적자가 가장 큰 국가인 미국의 대일공세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두가지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과의 제휴강화 측면과 미국과의 제휴강화 측면이 그것이다.

日本經濟와 미국경제간의 衝突이 擴大・深化되면 일본으로서는 아시아, 특히 東아시아諸國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일층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중국이나 東南亞諸國에 대한 經濟的 進出은 요소가격의 격차와 기술흡수력의 저위성 등 여러가지 애로요인 때문에 확대・강화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바로 여기에 兩者의 중간적 존재인 한국이 끼게 되면 여러가지 면에서 이러한 진출을 자연스럽게 확대・강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域內經濟에 있어서의 補完度를 훨씬 높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中國 내지 東南亞에의 플랜트 진출의 경우 韓・日이 共同進出하여 일본은 尖端技術部門을 담당하고, 한국이 中間技術部門을 담당하면 중국, 동남아제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技術吸收도 용이하고 所要비용도 일본 단독진출의 경우에 비해서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플랜트 진출을 훨씬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域內的 貿易 및 投資活動을 촉진시키기 위한 社會間接資本의 형성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상술한 논리에 의해 경비절감이 실현됨으로써 이러한 자본형성을 월등히 확대시키게 하여 域內分業度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역내분업도의 확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형성의 일환으로서 技術 및 熟練人力의 축적이 극히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를 위해서도

韓・日 協力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남아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尖端技術 중심의 일본기술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中級技術 중심의 한국기술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또한 일본의 방대한 흑자를 이용, 가장 ‘技術人力育成센터’를 건립하여 中國, 東南亞諸國의 노동자로 하여금 한국과 일본의 기술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하면 역내경제의 相互補完度는 빠른 속도로 강화될 것이다.

미국이나 歐洲諸國과의 提携強化의 측면이란 円高는 가격메카니즘을 통해 한국의 대일수입을 축소시키고 구미,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첨단산업 제품의 대외경쟁력에 밀려 위축되었던 구미의 첨단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한국기업과 合作企業化시키면 — 예컨대 구미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숙련·기술인력을 결합하여 한국에서 생산 — 상당한 尖端産業分野에서 日本製品에 비하여 상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러한 관계가 실현되면 一次的으로는 尖端産業製品의 수입대체를 가능케 함으로써 對日逆調를 축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歐美市場, 일본시장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제국의 尖端製品市場에서도 기존의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 감으로써 세계교역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 걸친 일련의 관계를 충실히 활용함으로써 대일수출의 증대, 나아가서 대일역조를 획기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일층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경제가 최근 円高로 인해 價競爭力을 높임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튼튼한 對外競爭力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賃金, 利子 및 地代 등 요소가격의 상승률이 그간 수년간에 걸쳐 요소생산성의 상승률을 上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要素價格과 要素生産性の 불균형은 輸出市場依存的인 제조업의 收益率을 하락시킴으로써 금융자금의 배분을 생산적인 부분으로부

18) 특히 円高가 진행되어 가면 이들 製品의 價格競爭力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韓・美간에 이러한 協力方式이 구축되면 換率面에서도 양국간 협력 여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터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생산적 산업을 확대시키고 생산부문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킨 것이다.

遊興飲食店 등 非生産的 産業의 확대는 分配構造의 歪曲과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直·間接的 消費性·奢侈性 수입수요를 유발·확대시키는 섹터(sector)로서 작용하고 있다.

技術開發能力에 있어서도 導入技術을 吸收·消化하여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수준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기술개발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 왔다. 더구나 한국경제의 애로요인인 자원 및 에너지節約의 기술의 개발은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자원낭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비생산적 부문의 확대 및 국민경제의 낭비구조는 결국 生産的 資金의 不足, 특히 中小企業의 萎縮 및 社會間接資本의 不充分性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円高로 인해 조성된 對日 水平分業의 확대 및 이를 통한 對日逆調의 획기적 축소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한국경제의 약점을 어떻게 補完함으로써 對外競爭力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租稅構造의 재편을 통해 비생산적 부문을 축소시킴으로써 생산부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分配構造도 非生産的 不勞所得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生産部門 종사자의 상대소득을 높이면 그 再調整 과정에서 要素價格과 要素生産性간의 不均衡은 자연히 均衡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비능률 및 낭비적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기업의 對外競爭力의 源泉인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으로 대표되는 生産技術을 大的으로 도입·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통한 대외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円高로 인해 조성된 對日 水平分業 가능성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발전시켜 가리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韓國 文獻〉

- 韓國産業銀行 調査部, 『円貨強勢下の 影響分析과 對應戰略』, 1993
- 韓國貿易協會, 『對日輸出與件 分析』, 1994
- 金都亨, 『円貨強勢下の 韓日産業協力可能分野』, 産業研究院, 1987
- 李榮善, 『換率變動에 따른 韓日の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 韓國經濟研究院, 1987
- 李鐘允, 『2000年代의 韓日經濟協力の 方向』, 韓日經濟協會, 1988
- _____, “韓日間 經濟摩擦과 對日技術接近의 새로운 視角”(『韓日間 新技術經濟秩序編』), 1993
- _____, 『円高에 대한 日本의 戰略』, (大韓商工會議所, 韓國國際經濟學會, 1993)
- _____, 『円高狀況下の 韓・日間 産業協力可能性과 強化條件』(『全經聯』1994.2)
- _____, 『韓國經濟의 體質改善과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한 政策方向』, 全國經濟人聯合會, 1994
- _____, “새로운 韓日經濟協力の 方向”, 任千錫編 『韓日 經濟協力の 方向』,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日本 文獻〉

- 日本經濟新聞社, 『超円高』, 1993
- 日刊工業新聞特別取材班, 『平岩リポート』, につかん書房, 1994
- 通商産業省, 『通商白書』(1994年版), 1994
- 篠原三代平編, 『円高・空洞化 國際協調への戰略』, 東洋經濟新聞社, 1987
- 東伸之, 大川 將, 『エレクトロニクス業界における戰略提携』
- 林 信道, 『円高激震が日本の産業構造を揺さぶる』, 週刊東洋經濟臨時増刊

佐藤 明,『アジアがリードする世界の造船マーケット』

片山 榮一,『業界新秩序の確立を目指す洋紙業界』

佐野睦典, 山本 功,『變貌する世界の大企業』

大槻幹雄,『(富士通の) リエンジニアリングについて』, 1993

鶴田俊正,『日本經濟 挑戦と協調』, 東洋經濟新聞社, 1988

日本經濟新聞, 1994年 1月 1日～8月 20日号

